

故조갑녀 살풀이춤 보존·전승

28일 남원예촌 조갑녀 살풀이 명무관서 대규모 50인 민살풀이춤 공연 진행

남원예촌 조갑녀 살풀이 명무관 마당에서는 오는 28일 토요일 오후 3시, 남원이 낳은 명인故조갑녀 살풀이춤의 보존·전승을 위한 50인 민살풀이춤 공연이 화려하게 펼쳐진다.

故조갑녀 명인은 1923년 남원시 금동에서 태어난 분으로, 수건을 들지 않고 소매와 손끝으로 추는 살풀이춤인 민살풀이춤의 대가로, 1931년 제1회 춘향제를 시작으로 1941년까지 매년 승무와 검무, 살풀이춤을 취 명무(名舞)라는 칭호를 받았으며, 남원시에서는故조갑녀 명인의 살풀이춤을 보존·전승하기 위해 남원예촌 거리에 조갑녀 명인의 생가를 복원해 명무관을 개관하고 생전에 사용했던 유품과 공연사진, 영상 등 330여 점의 기증품과 수집 자료를 전시하고 있으며 명무관 앞 마당에서 다양한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조갑녀전통춤보존회' 대표이자 조갑녀 명무의 딸 정명의 명무가 어머니의 뜻을 기리기 위해 대규모 50인 민살풀이춤을 선보일 예정이다.

조갑녀 살풀이춤은 무대 중앙에 돛자리를 깔고 정해진 공간에서만 추는 춤으로 어수하게



남원예촌 조갑녀 살풀이 명무관 마당에서는 오는 28일 토요일 오후 3시, 남원이 낳은 명인故조갑녀 살풀이춤의 보존·전승을 위한 50인 민살풀이춤 공연이 화려하게 펼쳐진다.

발을 딛고 서서 정지된 듯 절제된 몸짓으로 춤사위가 특징인 △진주로 건너가 꽃핀 남원 검무 △검정 장삼에 붉은 가사를 어깨에 메고 흰 고깔을 쓰고 추는 민속춤 승무 △판소리 △월하정인(부채춤) △소고춤으로 전 세대를 아우르는 아름다운 춤사위가 펼쳐진다.

남원시 김경숙 문화예술과장은 "故조갑녀 명인을 기리는 50인 민살풀이춤으로 우리의 흥과 멋을 한자리에서 맘껏 즐기며 가슴 깊이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우 기자

'알기 쉬운 동초제 수궁가' 출간

전북대 수의대 안동춘 교수, 어려운 한자어·사실 배경 쉽게 담아

전북대학교 수의대 안동춘 교수가 동초제 수궁가와 관련된 책을 펴내 화제다. 이에 따르면 안 교수는 판소리를 직접 수련하면서 특히, 동물을 주 소재로 현실과 가상 세계를 넘나드는 수궁가에 큰 관심을 가져왔다.

그 중 동초 김연수 명창이 만든 동초제 수궁가는 사실이 가장 깊고 논리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소리로, 안 교수는 이를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알기 쉬운 동초제 수궁가'를 저술했다.

이 책은 판소리 수궁가에 담긴 어려운 한자어와 사실의 배경 설명을 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가장 정확한 해설을 담아 풀이한 수궁가 의역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공자는 물론 일반 독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였다.

특히 판소리에 등장하는 중국 역사와 지리를 이해하도록 역사 연표와 지도를 첨부해 독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안 교수는 "교양적인 지식과 일반 생활한 자까지 풍부하게 담아낸 이 의역본을 읽음



으로써, 일반 대중들이 판소리에 쉽게 다가서고, 일반교양 상식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안동춘 교수는 고창군 출생으로 현재 전북대 수의과대학에서 학생 교육과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국립전주박물관서 펼쳐지는 명품 태권도 공연

국립전주박물관(관장 직무대리 장진아)은 2023년 문화가 있는 날 문화행사로 전북태권도 협회의 '2023 명품 태권도 공연'을 마련, 오는 29일, 11월 4일, 11월 5일 오후 2시 세 차례 옥외트리아에서 관람객들과 만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 공연은 전북도와 전주시의 후원을 받아 전주비전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의 '백절불굴

(百折不屈)'을 무대에 올려 태권도 공연의 진수를 보여준다.

특히 태권도의 5대 정신 중 하나인 백절불굴은 '백번을 꺾이더라도 절대로 굽히지 않겠다'는 용기와 기상'이란 뜻으로, 이번 공연은 꺾이지 않은 용기와 기상으로 도약하는 태권도의 화려한 기술과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태권도 품새를 기본 바탕으로 역동적이고 현란한 기술의 고난도 격파와 발차기, 실전과도 같은 호신술, 부채를 이용한 안무, 마지막에 신나는 음악에 맞춰 추는 태권체조 순으로 진행된다.

국립전주박물관 관계자는 "도내 태권도협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이번 공연은 선선한 가을 날 우리를 명품 태권도의 향연으로 초대한다"면서 "온 가족이 함께 박물관으로 나들이를 떠나 재미있는 공연도 보고 추억도 쌓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육대, 1인 1악기 실기능력 향상 '전통음악 교육과정 이수발표회' 열려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지난 24일 오후 7시부터 황학당에서 음악교육과 주관으로 전통음악 교육과정 이수발표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교육부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전통음악 교육과정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재학생 50명을 선발해 개별악기(6개)와 전통합주, 국악관현악 등 1인 1악기 실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발표회는 전통음악 교육과정 이수생 41명과 전주시립국악단 단원들이 협연해 대취타, 단소, 판소리, 창장음악 합주, 판소리 독창, 전통음악합주, 창작음악 합주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장은성 기자

청년문화예술 프로젝트 예술있슈 참여 뭉뚱, 아카이빙 전시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 주관하는 '2023 청년문화예술 프로젝트 예술있슈 사업'에 참여하는 뭉뚱(movemove)팀이 24~29일 6일간 cafe BLOC(전주시 현무1길 31-7, 1F)에서 아카이빙 전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내 청년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탐구와 경험으로 청년 커뮤니티 조성 및 청년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시작된 사업으로, 10개 소모임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아카이빙 전시를 진행하는 뭉뚱(movemove)팀은 움직임의 가치를 통해 변화를 주도하는 그룹으로, 현대무용가이자 팀의 대표인 최경서는 리더십과 운동을 어떻게 일으키는지를 말하는 'TED' (How to start a movement : 움직임이 시작되는 방법)를 보여



우리 사회에서도 참여가 조직화되고 변화가 어떻게 시작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사업을 시작했다. 뭉뚱(movemove)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현상을 예술가들의 창의적인 시선으로 기록하고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향후 사회적 정서 치유와 시대적 연대감 회복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며 "전시 공간에서 함께한 경험이 공명이 돼 퍼져나가 사회에 큰 울림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향토문화 장승 의미 널리 알린다

'제27회 순창 추령장승축제' 28~29일 추령장승촌서 다채롭게 개최

다양한 장승을 한자리에서 감상하는 것은 물론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까지 다채롭게 체험할 수 있는 '제27회 순창 추령장승축제'가 오는 28일 북흥면 서마리 추령장승촌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순창추령장승제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향토문화인 장승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우리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행사로,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오는 주말 이틀간 진행된다.

북흥면의 맛과 흥, 정이 함께 어우러지는 이번 행사에는 장승 깎기 시연을 비롯해 난타 공연, 대금 연주, 플루트 연주, 밸리댄스, 농산물 직거래장터 등이 열리며, 장승깎기, 연날리기, 수수빚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한, 행사 2일 차인 29일에는 뽕식이 아저씨로 잘 알려진 개그맨 이용식 씨가 축제장을 찾아 깜짝 공연을 펼칠 예정으로, 축제장을 방문한 관람객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할 계획이다.

특히, 행사 장소인 북흥면 서마리 추령장승촌은 수백여 기의 다양한 모양의 장승과 솟대가 전시되어 있는 전문 전시 공간으로, 멋진 산 풍경이 펼쳐지는 추령의 넓은 부지에 전국 각



사진은 2022년 순창 추령장승축제 모습

지의 전통 창작품, 아프리카·인도 등지의 장승과 솟대 등을 관람할 수 있어 매년 많은 관람객들이 찾는 인기 명소다.

박용길 순창추령장승제위원회장은 "앞으로도 더 다양한 볼거리와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잊혀 가는 우리 전통 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올해로 27회를 맞이한 추령장승축제가 지역 축제를 넘어 전국구, 세계에 널리 알려지는 축제가 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면서 "이번 추령장승축제에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해 소중한 추억을 쌓아 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청년애 희망을, 노년애 행복을, 농업애 미래를

축! 전주매일 캠페인

부채는 줄이고, 희망은 더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농업경영이 어려운 농업인의 농지 등을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부채를 상환**해주고, 해당 농업인에게 **최대 10년까지 장기임대**한 후에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금융기관·공공기관의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이면서 (또는 최근 3년 이내 농업재해로 연간 피해율이 50% 이상)
-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

☺ 매입대상

-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인 농지
-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 시설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축사 등)

🔍 지원조건

매입 가격 | 감정평가금액 (지역별 매입상한 60,000원/㎡ ~ 113,000원/㎡)

매입 한도 | 농업인 10억, 농업법인 15억

임대 기간 | 7년(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

연간임대료 | (농지) 관행임차료 수준, (시설물) 매입가격의 1%

환매 가격 | **농지** 환매시점에 ①감정평가금액 ②매입가격에 연 3%를 가산한 금액 중 낮은 가격

농업용시설 당초매입가격

농림축산식품부 **kf** 한국농어촌공사 **fb** 농지은행

상담/문의 **1577-7770**

홈페이지 www.fbo.or.kr